

당국 “최근 8주 코로나 사망 42%는 미접종 또는 1차접종”

만 12세 이상 위중증 46%, 접종 안했거나 1차만 접종 사망자 38.5% 접종 안해...확진자 59.1% 3차까지 접종

방역 당국이 최근 8주 간 발생한 12세 이상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46%가 백신 접종한 적이 없거나 1차 접종만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확진자·위중증·사망자의 예방접종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전했다.

지난 2월6일부터 지난 2일까지 8주간 발생

한 만 12세 이상 위중증 환자 5881명 중 2510명(42.7%)은 미접종, 194명(3.3%)은 1차 접종 완료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경우 전체 9954명 가운데 3829명(38.5%)이 미접종, 376명(3.8%)가 1차 접종 완료자였다. 다만 확진자의 경우 전체 1047만 8242명 중 59.1%에 해당하는 619만1047명이 3차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2차 접종

완료자도 353만8464명(33.8%)였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확진자는 62만3319명(6.0%), 1차 접종만 마친 확진자는 10만9221명(1.0%)였다.

만 12세 이상 전체 인구 가운데 미접종 또는 1차 접종 완료자 비율은 5.4%다.

당국은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9명 증가한 1014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달 8일부터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184명이고, 60세 이상이 174명으로 94.6%를 점유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4만1921명

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19만 5419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1.5%이며, 최근 1주간 18.5%-22.8%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이날 0시 기준으로 전날과 같은 5만1611개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4.6%, 준-중증병상 60.2%, 중등증병상 31.6%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6.9%이다.

입원대기자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지난해 12월29일 이후 계속해서 0명을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를 배정된 환자는 19만8556명으로 수도권 9만751명, 비수도권

1만7805명이다.

재택치료자 수는 98만5470명으로 1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1일 2회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을 모니터링하는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64개소다. 이는 39만4000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관리군의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병·의원 9617개소가 있다.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재택치료상담센터는 254개소가 운영 중이다.

확진자의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병원급 855개, 의원급 5186개로 총 6041개소가 있다.

오유나기자



CPTPP 가입반대 외치는 농어민들 CPTPP 가입반대 전국농어인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 인근에서 '포괄적 점진적 한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야외 마스크 해제’ 인수위는 난색...당국 “의견 수렴해 결정”

비대면 진료 유지 여부도 논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실외 마스크 해제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자 정부도 신중론으로 돌아선 분위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인수위 쪽 의견들을 함께 고려해 논의하고 있다”며 “의견 수렴을 거쳐 금요일 결정된 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의료·방역체계를 일상화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발표한다. 사적모임 및 영업시간 제한이 전면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인수위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며 실외 마스크 지침은 유지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유지할지 여부도 논의하고 있다. 손 반장은 “통상적으로 1급 감염병에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데, 급수가



변동되더라도 가능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당장 낮추는 것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11일 코로나

특위 회의에서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 감염병 등급 조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는지 우려와 함께 시행 전 혼란을 막기 위한 철저한 선행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이슬기자

해외여행 위조지폐 경고...국정원 “만져, 비취, 기울여”

TCIC 비정기 소식지...외화 위조지폐 수록

국가정보원이 외화 위조지폐에 대한 위험을 경고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해외여행이 점증하면서 외화 위조지폐로 인한 범죄 연루 가능성 지적과 예방 대책 당부 등이 이뤄졌다.

13일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TCIC)가 공개한 ‘국제범죄 위험 알리미 서비스’에는 외화 위폐 주요 특징과 신중 수법, 예방 및 주의사항 등 관련 정보들이 담겼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외화 위폐 신고 매수는 2432장에 이른다. 감별기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모서리를 손상시킨 초정밀 위폐 ‘슈퍼노트’가 적발된 사례 등이 언급됐다. 또 1달러짜리 진짜 지폐를 100달러권으로 재인쇄한 변조 사례, 활영 소품 또는 교육용 모조 지폐를 어두운 곳 등에서 진짜 화폐처럼 유통시킨 사례 등이 있었다는 게 국정원 설명이다.

국정원은 “위폐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피해를 막기 위해 감별 3요소를 통해 확인해 보라”고 당부했다. 해당 3요소는 촉감을 통해 오돌토돌한 특징이 있는지 만져보기, 숨은 그림이 나타나는지 비취보기, 색 변한 여부를 기울여 점검해 보기 등이다.

국정원은 또 “해외 방문 시에는 고액권 대신 소액권을 사용하고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전 내역서 보관해야 한다”며 “개인 간 환전 또는 사설 환전소보다는 은행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김재환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